

라오스 비엔티안 ASEAN+3 정상회담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이요한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 주요 내용

- 2016년 9월 7일과 8일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서는 ASEAN 정상회의 직후 라오스를 의장국으로 하는 제19차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와 9월 8일 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가 각각 열렸음.
- 비엔티안 ASEAN+3 에서는 ‘아세안공동체비전 2025(ASEAN Community Vision 2025)’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포괄적 지역경제협력(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정치안보 분야와 금융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비엔티안 EAS에서는 ‘북한 핵의 비확산(Non-Proliferation)’과 동아시아 연계성(Connectivity)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표명함.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제시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이슈 배경

ASEAN+3(한·중·일)의 배경

- ASEAN+3은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동남아(ASEAN)와 동북아(한·중·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협력체
 - o 1990년대 초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 형성되면서 세계 경제의 지역화가 빠르게 확산되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 총리는 동북아와 동남아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경제회의(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를 제안함.
 - o 당시 미국의 반대와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되었던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1997년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ASEAN+3 체제의 형태로 출범하게 됨.
- ASEAN+3 구조는 정상회의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회의를 개최함.
 - o 1999년부터 역내 안전망 구축, 채권시장 발전방안, 자본 유출입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ASEAN 재무·경제장관회의
 - o 2000년부터 지역 및 국제 주요 정세를 논의하는 ASEAN+3 외교장관회의, 농림분야 협력 사업과 개발격차 해소를 논의하는 ASEAN+3 농림장관회의
 - o 2001년부터 ASEAN+3 노동장관회의
- 2015년 현재 ASEAN+3의 교역량은 7,080억 달러로 ASEAN 무역의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북아 3국의 대 ASEAN 투자는 31억 달러로 ASEAN FDI의 26%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호의존이 확대되고 있음.

EAS(East Asia Summit)의 배경

- EAS 정상회의는 ASEAN+3을 확대한 지역 협력체로서 2005년 출범하였으며 미국·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가 포함됨.
 - o EAS 정상회의는 ASEAN+3 정상회의와 연이어 개최하며, 한·중·일·미·러시아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지역 협력체임.
 - o EAS의 6대 우선 협력분야는 에너지·교육·금융·전염병 대응·재난대응·연계성(connectivity) 등이 있음.
- EAS 외교장관회의는 2008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EAS 정상회의 준비 및 협력 사업을 논의함.
- EAS 고위관리회의는 2012년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차관/차관

보급 협의체로 EAS 활동 및 협력사업 조정, 주요 지역의 국제 이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음.

2 이슈 현황

☒ 비엔티안 ASEAN+3 합의 사항

- ASEAN+3 정상들은 ASEAN+3 협력실무계획 2013-2017(ASEAN Plus Three Cooperation Work Plan 2013-2017)의 이행을 완료하고, 2017년까지 후속 실무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
 - 이번 19차 비엔티안 ASEAN+3에서는 한국이 제안하여 운영되고 있는 EAVG II(동아시아비전 그룹 II)가 제안한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East Asia Community)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ASEAN+3 협력이 동아시아의 평화, 안보, 개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테러·초 국경 범죄(transnational crime)·사이버안보·해양안보·기후변화·재난대응·식량안보·에너지 안보·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함.
- ASEAN+3 정상들은 동아시아경제협력을 위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와 동아시아비즈니스위원회(East Asia Business Council)의 노력을 치하하고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이번 공동성명에서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협력을 위해 노력한 한-아세안 센터, 중-아세안센터, 일-아세안 센터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치앙마이이니셔티브가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역내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기에 향후 이와 같은 다자적 금융체제의 운용과 통합을 시도하기로 함.
 - 2016년 2월 출범한 ‘ASEAN+3 거시경제사무소(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가 지역의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며, 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Asian Bond Markets Initiatives, AMBI)를 향후 3년 이내에 출범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음.
 - 이외에도 관광·농림업·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Asian Investment Infrastructure Bank)의 출범에 따른 ASEAN 연계성 2025(ASEAN connectivity 2025) 구상과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증진(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였음.

☒ 비엔티안 EAS 합의사항

- 11차 비엔티안 EAS 정상회의에서는 2015년 출범한 ASEAN 공동체 형성을 적극 지지하며, 동아

시아 공동체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함.

- 이번 EAS 공동성명에서는 비확산(Non-Proliferation)에 대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명기하여 강력하게 촉구함.
- EAS는 또한 (불법)이민자들과 인신매매에 대한 인프라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비엔티안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이 분야에 대한 시급성과 협력 의지를 표명함.

- EAS 정상들은 6대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EAS 개발이니셔티브(Development Initiative) 2015-2017’의 성과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분야별로 제시함.

- 에너지 분야는 효율성과 보존, 바이오 에너지 활용, 재생 및 대체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주제로 한 실무그룹을 마련하였고, 청정에너지의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EAS 청정에너지 포럼(Clean Energy Forum)을 지속하기로 하였음.
- 교육 분야는 2016-2020까지의 교육에 대한 ASEAN 실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하고, 2016-2017 학사 년도에 인도에 소재한 날란다(Nalanda) 대학에 불교 및 비교 종교 스쿨을 개설하기로 합의함.
- 금융 분야는 역내의 금융 안정성을 위해 위험 요소와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역내 금융협력과 국제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전염병 대응 분야는 2030년까지 아시아태평양을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free of Malaria)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인도-ASEAN 말라리아 대응센터 설립을 포함하는 말라리아 퇴치 로드맵을 채택함.
- 환경 및 재난 대응 분야는 2017년에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는 동아시아 환경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환경적 지속가능한 도시(ESC, Environmentally Sustainable Cities)에 대한 2030 아젠다를 재구성하기로 함.
- 재난 대응을 위해 2016년 11월 15~17일 인도네시아 암본에서 개최되는 EAS 긴급재난대응 툴킷(EAS Toolkit)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연계성 분야는 2016년 10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ASEAN 연계성 2025’를 위한 심포지엄을 환영하며, 동아시아 연계성 확보를 위한 무역투자의 원활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3 전망과 시사점

☒ 한국의 입장과 과제

- 한국은 1997년 ASEAN+3, 2005년 EAS의 원년 멤버로서 1998년 동아시아비전그룹(EAVG)과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을 제안하고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주도하였음.

- 한국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비군사화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7월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을 계기로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해결되길 기대한다는 표명을 하였음.
- 원론적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을 인정하지 않은 헤이그의 국제중재재판소 결과를 언급한 것은 다소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 한국 정부는 ASEAN+3과 EAS에서 대북 압박에 대한 회원국의 일치된 입장과 실천을 강조함.
 - 북한 핵 개발을 겨냥해 ‘EAS 비확산 성명’을 사상 처음 채택한 것은 이번 참여국 모두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였기 때문임.
 - EAS 정상들이 북한을 지목해 핵·미사일 포기를 촉구함으로써 북한에 보다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함. 북한의 핵 포기를 명시적으로 촉구한 비확산 성명은 호주가 주도했으며 중국·러시아도 지지하였음.
- 한국은 주요 외교 대상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모두 회동하는 ASEAN+3과 EA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협력 초기 주도하였던 동아시아비전그룹Ⅱ의 활동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동아시아비전그룹Ⅲ에 대한을 주도할 필요가 있으며, 한-아세안센터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 ASEAN의 입장에서는 강대국이 주도하는 것 보다 중위국가인 한국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며, 강대국의 경우에도 미·일의 주도는 중·러가, 중·러의 주도는 미·일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주도를 지지할 가능성이 큼.
 - 매년 개최되는 ASEAN+3과 EAS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의 한국 입장 지지만을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주도국으로 한국이 적극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임.
 - 동아시아 연계성에 강조가 지속됨에 따라 도로, 철도, 항만 건설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한국 정부와 민간 분야의 인프라 구축 시장 진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임. **EMERiCs**

출처

국민일보, 2016년 9월 8일

ASEAN Plus Three Statement on Active Ageing, 7 September 2016, Lao PDR.

Chairman's Statement of the 11th East Asia Summit: Turning Vision into Reality for a Dynamic ASEAN Community, 8 September 2016, Vientiane, Lao PDR.

Chairman's Statement of the 19th ASEAN Plus Three Summit, 7 September 2016, Vientiane, Lao PDR.

East Asia Summit Declaration on Strengthening Responses to Migrants in Crisis and Trafficking in Persons, 8, September 2016, Vientiane, Lao PDR.

East Asia Summit Statement on Non-proliferation, 8 September 2016, Lao PDR.

Vientiane Declaration on Promot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operation in East Asia, 8 September 2016, Vientiane, Lao PDR.